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조경환 투런포 '불방망이'

KIA, 5-2 LG 꺾고 2연승

"사랑해요 L~G~"

올 시즌 호랑이가 유독 강한 팀이 있다. 바로 LG 트윈스다. 상대 전적에서 11승 3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특히 KIA는 연패의 늪에 빠졌다가도 LG만 만나면 힘을 낸다.

KIA는 지난 5월(16~18일)엔 현대전서 3연패를 당한 뒤 LG전 2연승 이후 기운을 차렸다.

7월에도 6연패에 이어 또 다시 2연패로 허덕이던 KIA는 같은달 12~13일 LG전서 2연승을 거뒀고 이후 3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후반기 들어서도 KIA의 보약은 역시 LG다. 후반기 연승 행진으로 2위까지 넘보던 KIA는 지난주 삼성전을 시작으로 3연패를 당했고 5위와 1.5 게임차로 불안한 4위까지 밀려났다.

하향세로 돌아선 KIA는 다행히 이번주 LG와 만났고 지난 22일 잠실 LG전서 7-1로 대승을 거뒀다. 3연패의 사슬도 끊었다.

KIA는 23일에도 잠실구장서 열린 LG와의 맞대결서 선발 전병두의 5이닝 3안타, 2실점 호투와 조경환의 투런포를 앞세워 5-2로 승리했다.

KIA는 1회 선두타자 이용규의 2루타와 상대 실책 등을 묶어 선취점을 뽑아낸 뒤 장성호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3루서 이현곤의 적시타로 1점을 더 보탰다.

KIA는 4회에도 이현곤의 좌전안타로 만든 무사 1루서 조경환의 비거리 125m짜리 좌월 투런포가 터지며 2점을 추가했다.

4회말에 2점을 내준 KIA는 6회에 1점을 더 보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성고 봉황대기 준우승

0-2 덕수정보고에 '무릎'

'전통의 명문' 광주동성고가 제3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동성고는 23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덕수 정보고와의 대회 결승에서 0-2로 석패했다.

동성고는 2007년 프로야구 신인 2차 1지명인 좌완특급 양현종을 앞세워 통산 3차례 대회 우승을 노렸으나 팀 타선의 침묵이 뼈아팠다. 양현종은 8이닝동안 3안타, 탈삼진 14개를 잡으며 2실점으로 호투했다.

동성고 선발 양현종은 '0' 의 행진이 이어진 8회말 2사 이후 몸에 맞는공 2개와 안타 1개로 만루 상황을 자초한 뒤 5번 전동수에게 좌익수 앞 2타점 적시타를 허용, 무릎을 꿇었다.

한편 지난 1956년 야구부를 창단한 동성고는 79년과 2004년 두 차례 봉황기를 품은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영표, 팀 시즌 첫승 도움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전 풀타임 출전…공·수 맹활약

오른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 '초롱이' 이영표(29·토튼햄 핫스퍼)가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팀의 시즌 첫 승을 도왔다.

이영표는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즌 2차전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90분을 소화했다.

오른쪽에 나온 것은 지난 20일 볼튼과 개막전(0-2 패)에 이어 두 번째다. 풀타임은 올 시즌 처음.

토튼햄은 전반 7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선제골과 전반 17분 저메인 제너스의 추가골로 셰필드를 2-0으로 제압했다.

핌 베어벡 대표팀 감독이 직접 관전한 이날 경기에서 이영표는 공수에 걸쳐 제 몫을 해냈다.

전반 7분 이영표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아 로비 킨에게 내주자 킨이 다시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레넌에게 연결했다.

레넌은 페널티지역 안으로 파고들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패스를 연결해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고 베르바토프가 빈 골문을 갈랐다.

토튼햄은 10분 뒤 킨이 상대 미드필드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베르바토프가 아크 오른쪽에서 헤딩으로 떨궈주자 제나스가 달려나온 골키퍼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전반에는 오른쪽 미드필더 레넌이 공수를 넘나들어 수비에 치중했던 이영표는 후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11분에는 베르바토프와 패스를 주고 받은 뒤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 논스톱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가 골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후반 종료 직전 때린 왼발 중거리슛은 골문을 벗어났다.

한편 영국 축구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이영표에게 '기회마다 공격에 가담했다(Got forward at every opportunity)'는 평가와 함께 6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넌 아웃…"

23일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제 36회 봉황대기 고교야구 결승에서 1회말 동성고 유격수 노진혁이 덕수 정보고 2번 강진형의 투수앞 기습번트때 2루서 1번 박병일을 포스 아웃 시키고 더블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일보제공

호나우두 "맞교환 추진" 카카

〈R. 마드리드〉 〈AC 밀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질 대표 스트라이커 호나우두(30)와 이탈리아 1부리그(세리에 A) AC 밀란의 미드필더 카카(24)의 맞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라몬 칼데론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호나우두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AC 밀란측 대표자가 우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AC 밀란은 이미 호나우두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수와 직접 접촉하는 건 옳지 않지만 구단간 협상을 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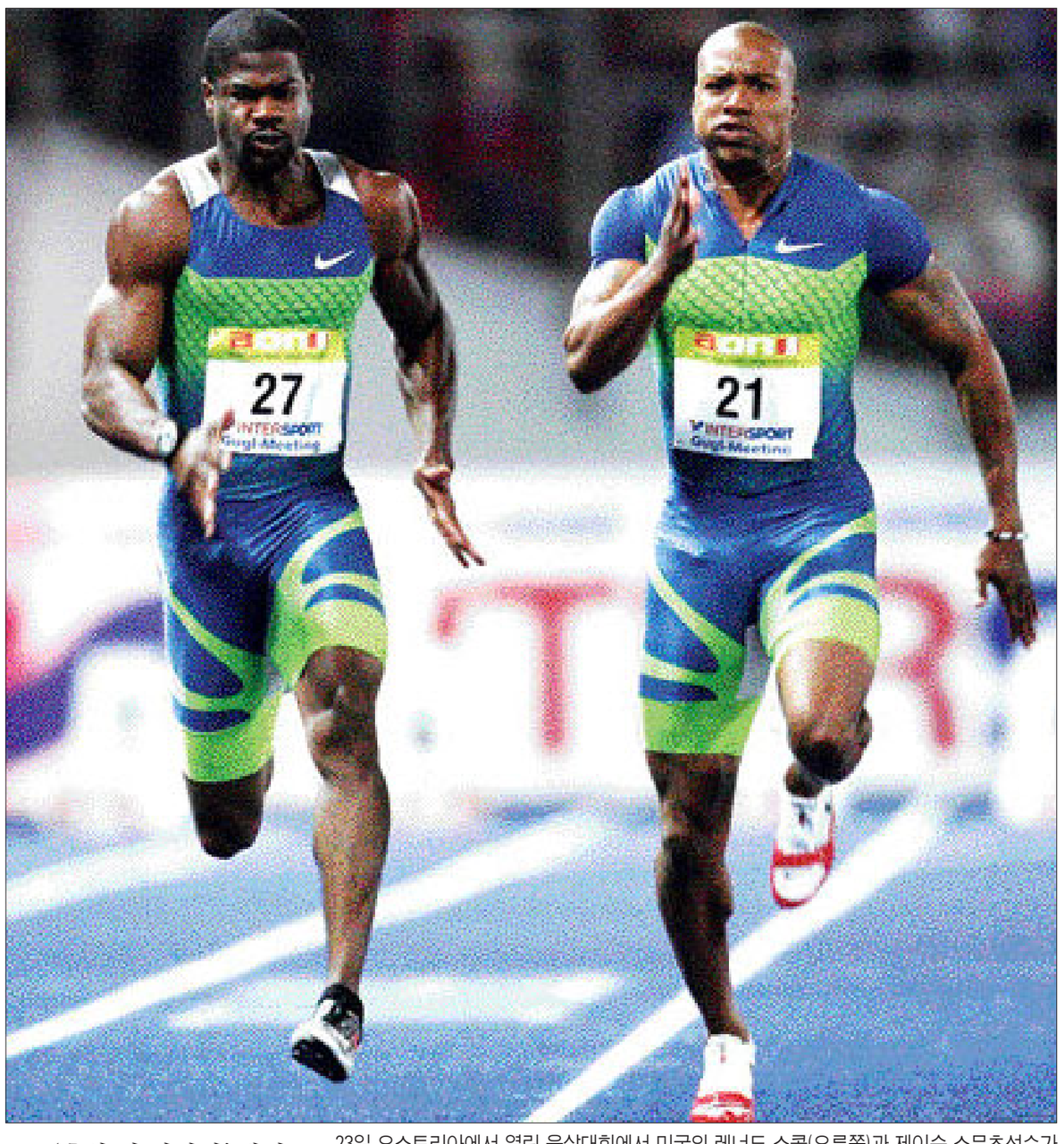
■ 로이터통신 보도

칼데론 회장은 이어 호나우두를 팔기를 원하지 않지만 카카와 맞교환을 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호나우두를 팔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호나우두가 이적을 원한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돈 말고 다른 뭔가를 원한다"고 했다.

또 "호나우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뛰길 원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나우두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네덜란드 스트라이커 뤼트 판 니스텔로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영입하면서 중앙 공격수를 보강했기 때문에 호나우두의 방출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총알 탄 사나이' 대결

2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 미국의 레너드 스콧(오른쪽)과 제이슨 스무츠선수가 남자 100m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데니스강 26일 '프라이드 웰터급' 8강전

혼혈 격투기 선수 데니스강(29·아메리칸 톱팀·사진)이 일본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웰터급 그랑프리 2006' 4강에 도전한다.

데니스강은 오는 2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대회 8강 토너먼트에서 아르메니아 출신 아마르 슬로예프와 맞붙는다.

데니스강은 지난 6월 대회 14강전에서 무릴로 닌자(브라질)를 1회 15초만에 TKO승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1998년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이래 통산 전적은 32전 22승2무 8패.

상대인 슬로예프는 세계 최강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레드데블)와 같은 팀 소속으로 킥복싱이 주특기이며 빼어난 입식 타격 기술에 그레코로만 레슬링 실력까지 갖춘 만능 파이터.

종합격투기 전적은 21승5패다.

이번 8강전에는 데니스강과 슬로예프를 비롯해 14강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사키 카즈오, 고노 아키히로, 초난 료(이상 일본), 게가드 무사시(네덜란드), 파울로 필리오(브라질) 등 7명과 자동 진출권이 있는 프라이드 웰터급 챔피언 댄 핸더슨(미국)이 출전한다. 대회 준결승은 오는 11월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다. 결승전은 준결승 2경기 이후 곧바로 치러진다.

한편 이번 대회는 케이블 영화오락채널 'XTM'에서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생중계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